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28일(음력 1월 3일) 수요일(주간)

한국 불자 3958만명
'2008··종교현황' 통계

포교 일선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비롯해 지역별 · 연령별 불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우리나라 불자수가 3958만여 명이라는 통계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 2002년에 이어 6년 만에 조사를 벌여 1월 20일 발간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밝혀졌다.

문화부 조사결과 종교인은 8259만여 명(2005년 통계청 집계 전체인구 4704만여 명)이며, 이 중 불교가 3958만여 명, 개신교 1194만여 명, 유교 1018만여 명, 천주교 487만여 명, 원불교 148만여 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인구수가 4700여 만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납득하기 힘든 통계다. 문광부 관계자는 "불자수가 총인구수에 근접하는 까닭은 각 종교단체가 제출한 것을 토대로 집계해 정확한 통계수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자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도 한명이 여러 사찰에 등록하고 군소종단이 난립한 현상 등이 두루 작용해 부풀리기가 극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신도 등록 및 관리 ·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염불이 참선 참선이 염불"
선지식을 찾아서 ▶14 원산 스님

"불교전서 번역 진력할터"
한국불서 대작불사하는 ▶7 찰스 뮐러 교수

상생 해법을 논하다

▶4 도법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담

익산 미륵사 창건 기록 발견

석탑서 사리기 등 나와…선화공주 이야기는 없어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맛동(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한 구절 '서동요' 때문에 고향 신라에서 쫓겨나 서동(백제 제30대 무왕)의 아내가 돼야했던 선화 공주.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도 불렸던 선화 공주와 서동의 사랑이 의심받는 사건이 터졌다.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창건시기와 석탑 조성 내력 등을 적은 금제사리봉안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백제 무왕과 왕후(선화 공주)가 용화산 못가에서 미륵삼존을 친견한 후 창건했다"는 기록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위)와 금제사리호(아래)의 발견당시 모습.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1월 19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륵사지석탑에서 보수정비를 위한 해체조사 중 발견한 사리장엄물을 공개했다.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버금가는 국보급 금제사리구 출토와 그 속에서 익산 미륵사의 창건시기를 밝힌 사리기가 나왔다는 중요성을 감안해 설명회에는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지금까지 백제 사리구로는 충남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2007년 10월 출토)가 유일했다.

사리기는 익산 미륵사가 설화처럼 639년,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년)때 창건된 것은 맞지만 창건한 왕후가 (신라 진평왕이 아니라) 백제 최고 관직인 좌평(佐平)의 딸로 적었다.

금제사리봉안기를 해석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금제사리봉안기는 백제 관련 국내 기록 중 왕비 이야기를 적은 유일한 기록"이라며 "익산 미륵사는 철저하게 왕후가 주체가 된 발원문"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공개됐던 해석을 일부 수정해 "원문 해석 중 앞면의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我百濟王后)'은 '나 백제왕후는'으로, 뒷면의 '또 원하옵나니, 왕후의 심신은(又願王后卽身心)'은 '또 원하옵나니, 왕후 내(나) 자신은(又願王后卽身) 마음이(心)'로 끊어 읽어 주어를 왕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의 해석대로면 금제사리봉안기는 사택씨 왕후가 발원한 것이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선화 공주가 익산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는 거짓일까? 학계는 물론 네티즌들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매년 서동축제를 여는 서동의 도시 익산부터 난리가 났다. △백제 무왕에게 왕비가 여럿 이었을 추정 △선화 공주가 죽은 뒤 사택적덕의 딸이 왕후가 됐을 가능성 △심지어 백제 멸망 후 익산 미륵사 가람 보호를 위해 서동과 선화 공주의 설화를 만들어냈다는 설 등이 분분하다. 많은 가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선화 공주가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선화 공주 부분은 허구일 수 있지만 무왕 대인 639년 미륵사가 창건됐다는 점, 왕후가 절의 창건을 주도했다는 점 등 나머지 역사적 부분은 금제사리봉안기 기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국유사>는 역사와 설화가 혼재된 사료의 하나"라며 "설화와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에도 많은 설화가 전해진다. 이번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금제사리구 발견을 두고 명문에 끄달려 서동요의 진위를 따질지, 백제 금동대향로의 아름다움에 버금가는 금제사리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지는 개개인의 몫이다.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7면에서 계속

"사리, 문화재 아닌 聖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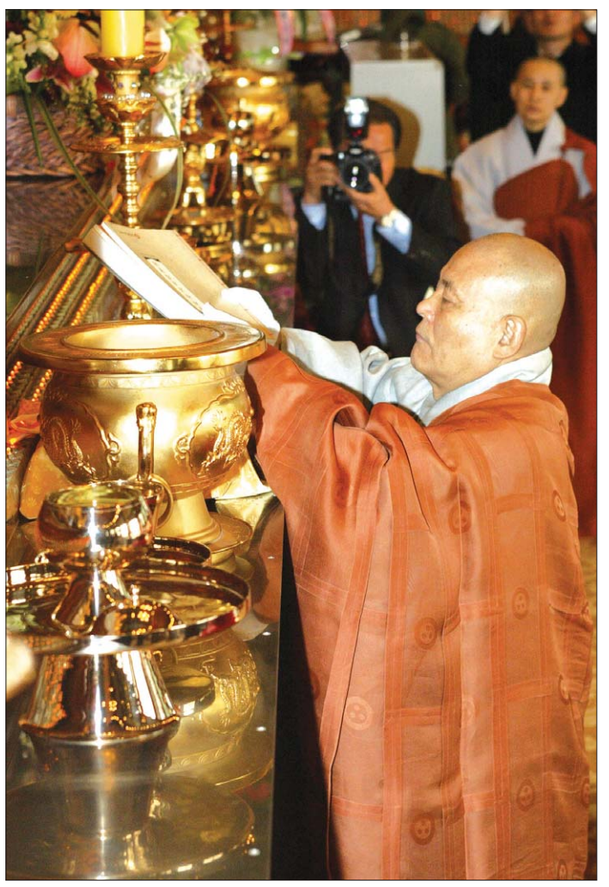
조계종, 미륵사지 사리구 출토관련 문화재청에 항의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구와 관련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불교문화재 관리와 정책수립과정에 불교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미륵사지석탑 해체와 사리장엄구 발견 과정에 불교계가 무시됐다는 내용으로 1월 22일 발송됐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사리장엄구를 문화재로만 접근해 이운시 불교적 의식이 무시된 것은 잘못"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문화재청의 불교계를 배제한 불교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수차례 지적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 표준 한글 · 한문본 <금강경> 봉정법회'에서 <금강경>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표준 금강경' 봉정

독송본·주석본 2종 발간, 종단 차원 보급 주력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2년 여의 불사를 회향하며 편찬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1월 20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표준 한문 · 한글본 <금강경>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밀운 스님(원로회의 부의장), 통광 스님(조계종 역경위원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비단 위에 또 꽃을 뿌리는 마음이로다'라는 제하의 종정 법어를 대독했다.

스님은 "중언부언의 수많은 이본 이역이 때로는 눈에 들어간 금가루가 됐고 평범한 일반대중들에게는 도리어 현애상(懸崖想,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 생각함)을 일으키게 했다"며 "2000만 종도들이 한글본 · 한문본 <금강경>의 조계종 표준본을 지남으로 삼아 정진하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조계종 표준 <금강경>'은 지금까지 발간된 <금강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주석본"이라고 말했다.

청화 스님은 간행사에서 "말과 글이 같아야 생각이 통하며, 생각이 통해야 종지가 드러나는 법"이라며 "종단 정체성 확립과 조계 종풍을 드날리기 위해 종단적 검증을 거친 소의경전을 간행했다"고 설명했다.

종단 표준 <금강경> 발간에는 연관 스님(前 화엄학림 학장)과 각묵 스님(화엄학림 강사), 무애 스님(송광사 강사)과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김호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조계종은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장 명의의 공문을 종단 각 사찰에 발송해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을 배포 · 보급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관련기사 2면

법구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법구경〉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첫사리 맑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